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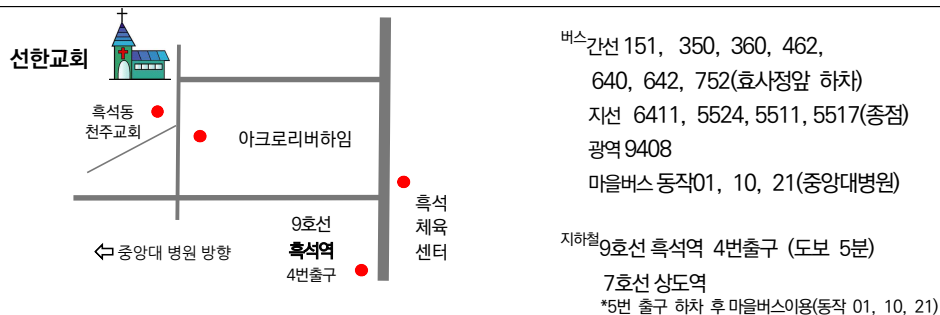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중 국 어 예 배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9:50 마리아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협력 선교사	강 성 규 (러시아)
	교 육 목 사 권 인 혁	국 내 선 교 사	오 인 숙, 한 배 선
	전임전도사 김 진 만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강도사)
	협력전도사 오 호 남		주의뜰교회 (김대열목사)
			주안예교회 (이정필목사)
			가슴뛰는교회 (원종선목사)
은 퇴 장 로	박 희 태	관 리 장 로	손 석 규
장 로	유 신 웅 (집사장)	500/50 교회	(1호) 필리핀Good Church
	김 대 희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조 윤 익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행 18:10)

I Have Many People in this city

실 천 사 항 지역봉사 전도 / 기도 선교사의 삶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여호와와 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민수기 6:24-26)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오전 9:30	
	오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21장 (통일찬송가 21장)
교 독 문		교독문 4번 (시편 5편)
찬 양 과 경 배		430장 (통일찬송가 456장)
예 배 기 도		유신웅 장로
찬	양	드림성가대
말 씬 봉 독		민수기 6:22~27
설	교	이렇게 축복하라 (임춘배 목사)
헌 금 드 림		오세일 조덕순 조선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선한 능력으로
축 도		임춘배 목사
송 영		드림성가대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배안내

오늘 부서별 성경공부는 쉽니다. 오후예배는 가정에서 드립니다.
4일(월)~6일(수) 새벽예배와 수요일예배(6일)도 가정에서 드립니다.
2. 축제예배

2월 10일(주일)은 축제예배로 드립니다.

[2019년도 교구목자 및 셀리더]

1교구: 김대희 김혜선

- (1)흑석셀: 구영서 방성자
구영서 방성자, 김희상 김은희, 최영석 최윤정, 박종원 최은주,
조홍식 김지형, 김기호 김지숙
- (2)상도셀: 이용재 장수정
이용재 장수정, 손정환 전희영, 지영 박미정, 배한승 조은혜, 서창덕 이소영,
이주석 김지아, 이호재 안현미
- (3) 서초셀: 고상돈 장혜선
고상돈 장혜선, 김대희 김혜선, 김재준 오성애, 임대원 윤진

2교구: 유신웅 이해경

- (4)분당셀: 손영삼 백미경
손영삼 백미경, 유신웅 이해경, 김현석 심지숙, 심인섭, 정구원 신영문, 이혜숙
- (5)안산셀: 강병국 배미자
강병국 배미자, 백상열 김명선, 이성범 조연금, 김석범 서진화, 윤국로 안혜진

3교구: 조윤익, 오세일

- (6)과천셀: 조계승 이광순
조계승 이광순, 이용규 나의숙, 이병삼 류은영
- (7)강북셀: 조윤익 오세일
조윤익 오세일, 이태수 김미숙, 구문서 김은정, 박대수 정진숙

4교구: 박희태, 김명옥

- (7)관악셀: 박영근 오세영
박영근 오세영, 편도선 조선희, 윤진기 백영미, 송혜영, 신희강
- (8)강서셀: 윤호중 허정미
윤호중 허정미, 박희태 김명옥, 김계모, 안기연, 이기환 조덕순

기타

- (9)신혼부부셀:
김성찬 전지혜, 원창범 이주연
- (10)에스더셀: 회장: 김점분
김점분, 이은자, 김수예, 박재경, 이금순, 이원남, 정영옥
- (11)바울회: 회장: 고상돈
이동수, 박희태, 김대희, 유신웅, 조윤익, 고상돈, 박영근, 김희상, 이태수,
정영기, 김종흠, 임대원, 이기환, 손석규, 황명준, 이두호

한주간의
기도제목

설 명절 동안 하나님을 찾음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온 가정이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셀 모임 나눔지 “사랑이 최고 계명입니다”	
찬양과 기도	온 맘 다해 / 어저께나 오늘이나 (135장/통 133장)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6.25 한국전쟁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추운 겨울 만삭의 한 여인이 피난길에 진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급한 상황이라 여인은 근처에 있는 다리 아래로 내려가 혼자서 아기를 낳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추위에 떨고 있는 갓난아기를 위해 자기의 옷을 벗어 아기를 감싼 후 몸으로 품었습니다. 여인은 얼어 죽었습니다.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미군 장교가 지프차 기름이 떨어져 멈췄습니다. 미군 장교는 부대에 무전을 한 후 차에서 내려 그 부근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란 장교는 그 소리를 따라 다리 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갓난아기를 품은 한 여인이 벌거벗은 채 얼어 죽어 있었고 갓난아기는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교는 “기름이 떨어져 차가 멈춘 것은 아기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아기를 입양해 키웠습니다. 그 아이는 미국에서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출생에 대해 늘 궁금해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친어머니의 희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한국에 와 어머니의 묘를 찾아 자기 옷을 벗어 어머니 묘를 덮으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평생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벌거벗고 굶주린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마가복음 12:28~34
묵상포인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계명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생명이 다하기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맹목적 사랑이 아니라 지성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재능과 물질로, 몸으로 봉사하며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불성설입니다. 이웃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인본주의적 신앙이 됩니다. 이웃 사랑은 인간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기에 힘쓸 때, 이웃 사랑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예수님은 첫째 계명이 무엇이라 하시나요?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나요?(29~30절)
적용하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예배는 어떻게 다를지 나누어 보세요.
함께 기도하기	하나님을 믿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사랑으로 교제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을 이웃에게 전하며 영혼 구원의 기회로 삼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은혜의 말씀	
제목	이렇게 축복하라 (민6:22-27)
서론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가족들을 축복해야 할 내용을 바로 알아야합니다.
본론	1. 하나님께 구하는 3가지 축복 (1)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24) (2)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25) (3)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26)
	2. 교훈 (1)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한다. (2)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3)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자.
결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배기도	유신웅 장로	김대희 장로
헌 금 위 원	오세일 조덕순 조선희	서창덕 손영삼 심인섭
오후예배 기도	가정별예배	신영문 집사

설 가정 예배 순서지	
찬양	552장 ♪(통358) 아침 해가 돋을 때
	1.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2.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3.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4.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맘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후렴)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둔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기도	가족대표
성경봉독	에베소서 4:1-3
	1.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2.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교회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우리 가족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 명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하나 되게 뜻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은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왜 중요한지, 또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묵상하고자 합니다. 1. 하나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1절에 사도 바울의 절박함이 등장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그만큼 독자들에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중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다 억울한 일을 당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수감생활을 하는 중에도 사도바울은 에베소서를 읽는 독자들을 위해 붓을 들어 ‘너희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동시에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부르심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단순히 보기 좋아 보이거나, 유익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 주신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힘써 지켜야 할 것입니다.

	2. 하나 되는 것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3절의 말씀처럼, ‘힘써’지켜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헌신이 요구 될까요? 2절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하나 되기 위해 헌신해야 할 것 4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상대를 대할 때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둘째는 온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온유한 마음과 자세로 상대를 대하길 기대하십니다. 셋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상대가 성화되는 과정을 끈기 있게 참고, 이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과 같이 서로를 용납하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모두는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 힘써 이 모든 일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3.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구원을 포함한 모든 신앙생활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3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역시‘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지만,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들의 하나됨을 위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들을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축복과 나눔> 1. 설 명절 동안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주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함시다. 2.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 헌신해야 할 4가지 자세 (겸손, 온유, 오래참음, 용납) 중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 예배 후에 맛있는 다과와 함께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감사의 제목을 함께 나누는 교제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	--